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7월 19일 연중 16주일

농사나 텃밭을 조금이라도 가꾸어 본 분들이라면 잡초 때문에 고생하실 것이다. 텃밭에 심어 놓은 오이, 고추, 상추를 지키려고 뒤통수 아래서 허리 한 번 못 펴고 풀을 뽑다 보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고생을 하나" 싶어 헛웃음이 나오기도 할 것이고, 뽑아도 다음 날이면 고개를 들이미는 잡초를 보면, 잡초가 없으면 농사지을만하겠다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런데, ‘잡초’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편견이 아닐까 싶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세상에 잡초는 없다"며 모든 식물이 저마다의 쓰임새를 가진 신의 선물이라고 했고, 시골 할머니들은 뜯어서 맛보고 "음, 불쾌하지 않네?" 싶으면 다 나물로 무쳐 드셨다. 실제로 어제까지는 밭을 망치는 천덕꾸러기 잡초 취급을 받던 '쇠비름(장명채)'이나 '질경이(차전초)'가 오늘날엔 오메가-3가 가득한 귀한 약초나 웰빙 식재료로 환대 받는 걸 보면, 잡초와 약초의 차이는 그저 '인간이 그 가치를 언제 알아챘는가'의 시간의 문제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밀과 가라지'의 이야기도 이와 같다. 가라지는 밀과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자란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둘은 확연히 구분된다. 밀이 통통한 열매를 맺은 반면 가라지는 껍데기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꾼들은 농사의 효율성을 따져 가라지를 뽑아버리자고 한다. 어린 곡식이 다치더라도 잡초를 없애는 게 맞다는 것이 우리 생각과 비슷하다. 당장의 결과만 보는 일꾼들과 달리, 주인의 마음은 다르다. "둘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인은 당장의 청소보다 밀 한 알이라도 다치는 것을 더 걱정한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가 모인 공동체, 심지어 종교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대입된다. 우리는 종종 교회나 좋은 모임에 가면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을 거라 기대한다. 그러다 누군가의 좋지 않은 모습이나 이기적인 행동을 보면 충격을 받고 "아, 여기도 똑같네."라며 실망하고 떠나버린다. 하지만 교회는 완벽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들의 모임'이라 하는 것이 더 맞다. 사람은 누구나 온전히 선하지도, 완벽하게 악하지도 않다. 오늘은 선하다 가도 내일은 흔들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 밀과 가라지의 불편한 동거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도 존재한다. 만약 내가 백 퍼센트 순도 높은 '밀'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면,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주님의 말씀이 삶은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하겠지만, 솔직히 우리 내면을 탈탈 털어보면 부끄러운 가라지(단점, 질투, 게으름)가 가득하다. 내 결점을 인정하지 않고 꽂꽂 숨기려고 하면 그 결점은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고 결국 타인을 비난하는 화살로 변한다. 오죽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러니 내 안의 짜질함과 못난 모습(가라지)을 인정하고 나와 먼저 화해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 저 진짜 대책 없는 가라지네요. 도와주세요!" 하고 진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채점하실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내면'을 보시는 분이셨다. 세금 도둑이었던 자캐오에게서 뜻밖의 통 큰 관대함을 발견하셨고, 죄 많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세상 가장 순수한 사랑을 끌어내셨다.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로마 7,13)라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도 선 뿐만 아니라 악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사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선하다고 하지 않으셨는데(루카 18,19) 하물며 우리가 어떤 선의 잣대로 대상을 악으로 규정하며 살 수 있을까?

지금은 밀과 가라지가 사이좋게(?) 자라는 인내의 계절이다.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 같아도,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 삶에 가장 좋은 씨를 뿌려 주셨다. 비록 세상이라는 원수가 밤새 가라지를 뿌려놓고 갇을지라도, 결국 열매를 맺을 좋은 밀알이 훨씬 더 많다. 보통 세상은 가라지(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고 완벽한 것만 '일등품'이라며 가치 있게 여기지만 주님의 눈에는 약간의 악점이나 결점(잡초)이 섞여 있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모습 그대로가 세상에 둘도 없이 유닉크(Unique)'하다. 세상에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추수는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하고 충실하게 살 아내는 우리였으면 한다.

	시간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보편 지향 기도
26년 7/19	9시	이신애(율리안나)	김주영(이냐시오)	백진주(에밀리아나)		이춘자(희순루시아)
	11시	황정순(크리스틴)	이향례(자넷)	박만석(마뉴엘)		박정환(라파엘) 박현주(크리스티나)
26년 7/26	9시	소은주(크리스티나)	박은미(안젤라)	김미선(안젤라)		김화룡(수산나)
	11시	김경숙(글로틸다)	심묘현(안젤라)	임기홍(스테파노)		김영자(마리안나)

공동체 소식

♥ ‘Generation to Generation Campaign’
‘세대에서 세대로 기금 모금’

시카고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세대에서 세대로’의 기금모금에 교우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5년간 실시되는 캠페인의 본당 목표: \$440,000.00
지난주에 배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납부하신 금액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됨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꼬미시움
▶일시: 7월19일(일) 오후12시 30분, 신관 1호

◎레지오마리아 피크닉
행동단원 협조단원 모두 참가해 주십시오.
레지오에 관심있으신 교우들을 적극 환영합니다.
▶일시: 7월 26일(일) 오후12시 30분, 기도시작
▶장소: Labagh Shelter #3(Foster & Cicero)

◎요셉회 성모회, 성령기도회 합동 야유회
3개단체의 회원들을 초대합니다. 음식과 음료, 상품이 준비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7월26일(일) 9시 미사 후
▶장소: Labagh Shelter #2(Foster & Cicero)

◎빈첸시오 월레모임
▶일시: 7월 26일(일) 9시 미사 후, 신관 4호

◎2026년 어린이 복사단 피정안내
▶일시: 8월 22일 오전 10시~오후 4시 (본당)
▶대상: 복사단 어린이 및 청소년
복사단원들의 신앙 성장과 전례 봉사의 의미를 배우는 1일 피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 신청바랍니다.
▶문의: 표혜진(kmckkoreanschool@gmail.com)

◎2026-2027 주일학교(CCD), 한국학교 학생모집
시카고 순교자 천주교회에서는 신앙과 한국어, 한국문화를 함께 배울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주일학교(CCD):
신앙교육 및 성사준비, 다양한 체험활동들
▶한국학교:
한국어 및 문화와 역사교육, 다양한 체험활동들
▶일정: 2026년 9월 13일 ~ 2027년 5월 2일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9:20 ~ 10:30(CCD)
오후 12:30 ~ 2:30(한국학교)
▶대상: 만 5세~8학년
자녀들에게 신앙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및 등록: 성당 사무실 or 표혜진
(kmckkoreanschool@gmail.com)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 사랑의 점심 나눔 안내

오늘 9시와 11시 미사 후, 8구역 3반 반원들께서 사랑의 점심으로 콩국수를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고광혁(토마스), 박병규(어거스틴), 조현정(에스터), 이순영(젼마), 이춘자(희순루시아), 장미자(안젤라), 이태식(요한), 정영옥(모니카), 박만석(마눌엘), 유성희(스티브), 김종희(마르틴), 정종하(가롤로), 윌리엄버지스(김귀순)

○교무금 \$ 4830.00 ○주일헌금 \$ 1,624.00
○감사헌금 \$ 100.00 ○토요청년,영어헌금 \$ 322.00

■감사헌금: 정찬일(안토니오), 김호범(다니엘)

『 2026년 7월 19일 미사 지향 』

■ 생미사
김앤디(안드레아), 엄광식(토마스), 유명주(마가렛), 이원일(리보리아), 송대한, 박옥현(라파엘)

■ 연미사
김순열(카타리나), 도복순(안나), 도상기(이냐시오), 배안나, 이금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콜라따), 박봉윤, 지정숙(헬렌), 주영선(소피아), 이인식(안드레아), 음규진(요셉), 이선애(마틸다), 김성애(마리안나), 임영일(바오로), 탁조명(안나), 이 용(베드로), 강성대

7월 21일(화): 최경애(데레사) (생미사)
김성애(마리안나), 김선경(임마콜라따), 김순열(카타리나) (연미사)

7월 22일(수): 김순열(카타리나) (연미사)

7월 23일(목): 김순열(카타리나) (연미사)

7월 24일(금): 주수한(루크) (생미사)
지정숙(헬렌), 김순열(카타리나) (연미사)



링컨우드 동물병원
LINCOLNWOOD ANIMAL HOSPITAL
Dr. Young R. Kwak (요셉)
(847) 677-7070
(773) 478-7070
6431 N. Cicero Ave (Cicero & Devon)
Lincolnwood, IL 60712



Oh Happy Day
Event . Hanbok . Photo
김 지영 (보나)
ohhappydayevent.com • (847) 313-1947



명품떡집 낙원
행복한 마음으로 빚은떡 정성껏 배달해드립니다.
우 동한 (다미아노)
(773) 588-8769 (24 hours) • (224) 392-8106



ZEPHYR DENTAL
제퍼 치과
Dr. Yong Chang, DDS
(773) 796-5928
(한국어 가능)
3531 N. Western Ave, Unit B, Chicago, 6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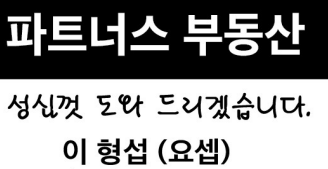
유엔아이여행사
YOUnI TRAVEL
함께해서 더욱 좋은 여행사
이 안젤라 (847) 870-4300
younitravel@gmail.com
www.younitravel.com
960 Rand Rd, Suite 219-A, Des Plaines



차 장의원
차 유진
(773) 592-8689 (24 hours)



USED CAR SALE
이 재수 (프란치스코)
(773) 615-9887
2425 Green Bay Rd, North Chicago, 60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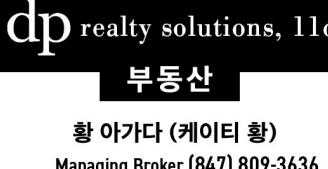
파트너스 부동산
성실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형섭 (요셉)
(773) 203-1590
615 Milwaukee Ave #40, Glenview, IL 6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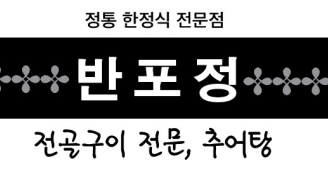
배 페인링
배 흥기 (그레고리오)
다년간의 경험, 교우 염가봉사
(847) 293-3163



라저스팩 꽃집
정 재숙 (모니카)
(773) 761-3500
1415 W. Morse Ave, Chicago



dp realty solutions, llc.
부동산
황 아가다 (케이티 황)
Managing Broker (847) 809-3636
katie.dprealty@gmail.com
950 Milwaukee Ave, #222, Glenview, IL 6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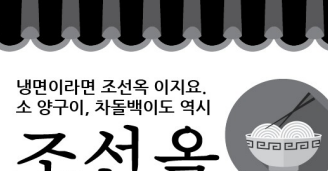
반포정
전공구이 전문, 추어탕
(773) 583-5209
3450 W. Foster Ave, Chicago



atom
최 켜마
(847) 414-0863



Michael Zyung
정 형섭 부동산
(847) 334-3700
michaelzyung@bairdwarner.com



조선옥
냉면이라면 조선옥이지요.
소 양구이, 차돌박이도 역시
4200 N. Lincoln Ave, Chicago • (773) 549-5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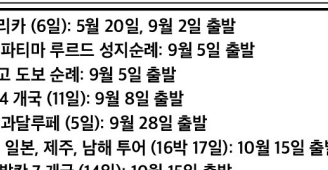
SUN
736-3883
SUN Auto Werk, Inc.
이 문규 (라파엘)
(773) 736-3883 • (773) 736-4550
4626 W. Cornelia, Chicago, IL



Jacob Young
CUSTOM CLOTHIERS
맞춤 정장 • 맞춤 셔츠
2214 N Lincoln Ave, Chicago, IL 60614
312.929.9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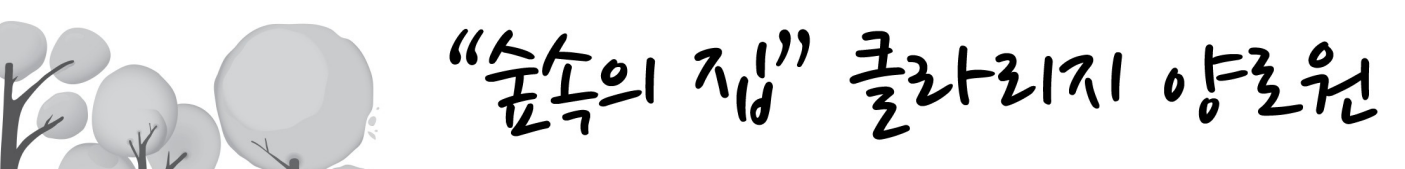
씨제이 여행사
2026년 성지순례
장 제니스 (젼마)
(773) 969-8687
chicagoasia@gmail.com
www.cjtravelintour.com
3520 Milwaukee Ave #103, Northbrook



• 코스타리카 (6월): 5월 20일, 9월 2일 출발
•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성지순례: 9월 5일 출발
• 산티아고 도보 순례: 9월 5일 출발
• 서유럽 4 개국 (11월): 9월 8일 출발
• 멕시코 과달루페 (5월): 9월 28일 출발
• 베트남, 일본, 제주, 남해 투어 (16박 17일): 10월 15일 출발
• 동유럽 발칸 7 개국 (14일): 10월 15일 출발
• 이집트 요르단 (13일): 11월 13일 출발
• 항공권, 크루즈, APPLE VACATION
내가 원하는 일정 나만의 맞춤 여행을 알려드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믿고 다시 찾는...
한국장 의사 서 정일 (토마스)
Tom Suh, F.D.
(773) 720-1004 (24 hours)



“숲속의 집” 클라리지 양로원
지 춘자 (요안나) (847) 224-7925 • (773) 369-6160 700 Jenkisson Ave, Lake Bluf, IL 60044

www.chicagokmcc.org E-mail: chicagokmccorg@gmail.com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at Chicago



본당대표전화: Office (773) 554 - 5426
4115 N. Kedvale Ave. Chicago, IL 60641

주임사제: Fr. 김 두진(바오로) C (626) 610-6555
본당수녀: Sr. 최 재순(에스텔) C (773) 366-0797
C (773) 941-2648

2026 년 7 월 19 일 연중 제 16 주일

『 말씀의 전례 』

◎ 제 1 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12,13.16-19

주 님, 당 신은 어 질 고 용 서 하 시 는 분 이 시 읍 니 다.

◎ 화답송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8,26-27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천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3,24-43

◎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오늘의 성가	입당성가	441	봉헌성가	511
	성체성가	498	파견성가	438

미사 시간 안내

토요 특전미사 6:00 pm (청년)
주일 미사 9:00 am. 11:00 am.
11:00 am (English)
평일 미사 (화요일, 목요일) 7:30 pm
(수요일, 금요일) 7:30 am

본당사무실
화, 금요일 9:00 am to 3:30 pm
토요일 11:30 am to 4:30 pm
일요일 8:00 am to 2:00 pm
월, 수, 목 휴무 (Mon, Wed, Thurs)-closed
화해성사
일요일 8:30 am - 8:45 am
10:30 am - 10:45 am

혼인성사
6 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유아영세
매달 셋째 주일 11:00 am 미사 중